

와자지껄

16대 여학생회 지원금 구동기

<시험공부도 해야하고 연애도 해야 하지만, 우리 할 말은 하면서 투쟁도 열심히 하면서 이 달을 힘차게 살아보여~^o^>

드리는 즐거움 : 총여학생회 정책국

받는 기쁨 : 단위 여학생회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 총동아리연합회, 단위 학생회

부끄러운 나라 , 부끄러운 어미

... 나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도덕이 없으니 도덕책을 없애고, 윤리가 없으니 윤리 책을 없애고, 법이 없으니 사회책도 없애고,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음악책도 없애고, 세계는 이제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독어, 불어, 일본어책도 없애고, 아 국어책은 당연히 없애고, ...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언제 있었냐고요... 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기술책은 있어야 하겠고, 역사책은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아! 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만의 아이를 무차별로 총질하는 한 팔로는 내 아이를 감싸고 있는 천박한 어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 게임은 시시하니까 진짜 사라들 죽여보라고...

-한겨레 신문 독자 투고란에 실린

박선주 주부의 글을 발췌했습니다.

시험!

물론 중요하지..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으신 돈으로 다니는 학교데 ...

연애?

뵈! 이 나라 미치게 하지... 어디 괜찮은 애인이 없나? 요기 요기 붙여라

그러나 전쟁!

무참히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왜 전쟁을 합니까? 이제 는 못참겠어!

4月 ... 요렇게도 할 살아볼까요?

전쟁!

지난 3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온 세계가 반전의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내에서도 역시 수십만의 민중이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부의 대책은 한심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학살의 현장으로 내보내기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악이라는 단 한가지의 이유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원격조준 미사일로 공격한다고 하던 미국은 양민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라크에는 전체인구의 반이 15세 미만의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항생제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지켜만 봐야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함께 일어서 봅시다!

여성!

3월 14일 어는 한 방송국에 출연해 인터뷰 석상에 선 새로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호주제를 폐지하고 성매매 방지법을 꼭 올해 안으로 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시사해 큰 논란이 되었다. 또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 역시 호주제 폐지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예상보다 빨리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서울대 병원 이모교수의 성희롱 사건 역시 병원측의 신속한 사고의 처리로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문제에 대해서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있는데 반해,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과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가한 교장의 사건은 아직 사건의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학내에서의 문제 역시 시급하다. 성폭력 상담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인해서 교내 성폭력 없는 문화운동에는 적극 임할 수 있으나 여성들의 문제나 여성학에 대한 기본적인 교양과목들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점차 학우들을 의식화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어지게 되었다. 총여학생회와 성폭력 상담실이 함께 성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수과목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내!

3·27 학생총회를 2시간여의 진통 끝에 성사시키고 2만 학우의 힘으로 우리의 요구안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스쿨버스 증차 및, 장학금 증액, 33가지의 복지요구안들이 모두 통과되면서 학우들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문과대 여학생회 여학우 총회를 성사시켜냄으로써 회칙을 함차게 통과시켰고, 총여학생회 회칙 역시 학생총회를 통해서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힘으로 4월11일 전쟁을 반대하는 총궐기에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으며 학우과 함께 호흡하고 숨쉴 수 있도록 의견개진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직!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학생회 사업 정리하라.. 학우들 만나라.. 새내기들 밥 사주라.. 많이들 정신이 없고 바빴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늦추어선 안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총례를 반드시 안착화 시켜 나갈 것이며, 늘 공부합시다!

소모임을 빨리 만들어나가 봅시다!

과 여부 건설을 위한 과와의 간담회사업을 신속히 진행합시다.

위의 세 가지를 잘해낸다면 아주 성공한 한 달이 되겠죠??

4월! 우리 합시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법정

사형확정!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탄식과 분노의 순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유신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조작된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28년이 지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희망의 싹을 틔우고 싶습니다

4.9통일열사 28주기 추모제

2003년 4월 9일 오후 3시 영남대 통일동산

1. 대의체계를 강화하고 기층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의견개선운동을 합니다

1, 반미반전의 기세를 더욱 드높여야 합니다

1. 학내 가부장적 문제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1. 소모임을 빠른 시일내에 안착화, 정형화 해야 합니다.

1. 계획성 있는 봄 농활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우들과 함께 소통하는 여학생회!

1)설문조사 실시

시험기간 학우들의 의사개진운동을 전제하여 올 한해 여학생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하는지,, 현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설문지를 만들어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 볼 것입니다.

2)이동총여학생회

격주로 한번 찾아가는 총여학생회! 시험기간에는 학우들에게 설문지도 나누어주고 시험공부 열심히 하라고 따뜻한 차 한 잔 나누어주는 총여로 다가가겠습니다.

3)화장실 신문

" 학우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코너를 신설하여 볼 일(?)보면서 학우들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다양한 방법으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겠습니다.

4)홈페이지 구축!

빠른 시일 내에 제작!

5)간담회 진행!

1학기가 끝이 날 때까지, 87개 과 모두 간담회를 성사시키고 과 여부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미반전에 늘 앞장서는 여학생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아이들과 여성! 지금 이라크의 아이들과 여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9천 여학우와 함께 반전의 기치를 드높이겠습니다!

-9천 여학우 선언운동

-반미 영상전

-반미관련 선전전(이동 여학생회)

-성조기 그려진 옷 바꾸어주기!

-반전관련 조형물 제작

▣성폭력 없는 영대 만들기!

1)설문조사

성폭력 학칙이 제정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러나 학우들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영대 내에 있는 여학우들의 성의식 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식지형을 파악하고 새로운 반성폭력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겠습니다.

2)선전의식화

시기마다 변하는 여성들의 현 정세와 함께 학우들에게 성에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선전 작업을 할 것입니다.

-뒷간토크

-기획대자보

3)모꼬지 기간 문화운동진행!

혼숙금지!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장기자랑 금지! 올 한해 꼭 만들어 나가봐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 소모임, 과 여부장 건설!

1)소모임

빠르게 1년 사업들을 고민하고 새내기들을 모아내 봐요...

예)문과대 여학생회 : '아람'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활동 소모임을 모집 중에 있다.

2)과여부장 건설!

87개과에 모두모두 새워낸다는 고민으로 총여학생회와 함께 간담회사업을 진행해 나가봐요

▣봄농활 너 이제 딱걸렸어!

시기가 좀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4계절농활을 모두 가는 영대는 가장먼저 시발점인 봄 농활부터 차근 차근 준비하면 좋겠죠? 먼저 주체를 선정하구요 그리고 총여학생회와 함께 올 한해 농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고민해 봅시다!

▣활기찬 여성운동가가 되자!

우리 일꾼들 가슴을 설레게 하는 봄입니다. 교정에는 눈빛 번뜩이는 학우들이 설레이는 계절, 부푼 마음으로 활기찬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학생회의 안정적인 생활속에서 사업을 계획하며 실천하지 못하고 있네요. 우리 학우들에게서 여학생회가 여학생회답게 여겨지기 위해선 우리 일꾼들부터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부터 여학생회 일꾼임에 자긍심을 갖고 모든 것에서 활력있게 살아가 보아요.

그러기 위해선~

-조종례를 꼭 해야겠죠??

-책도 읽고 공부합시다1 - 같이 여성학 공부해요~~~~

2003년 민족영남대 반미반전 평화실현을 위한 총궐기

“반전평화 2003”

- 2003년 민족영남대의 연대성을 높이고 반미반전과 평화실현 투쟁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4.11동맹휴업과 함께 의의를 가져가는 자리입니다.

♠ 일시 : 2003년 4월 11일

(1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집결)

♠ 장소 : 민족영남대학교 천마로 가설무대

학우들의 힘이 모이면

또 다시 **꿈은 ★ 이루어집니다!**

시기별 흐름

반미 반전시기 : 4월 7일 ~ 13일

4.11총결기 성사시키자!

모든 학내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파병에 반대하고,
전쟁반대 평화실현의 길로 달려나가는시기!

㉠ 4월9일

- 이동 총여학생회하는 날!
여학우 선언운동 합시다^^
- 식당마다 반전 영상물을 상영합니다.(12:30~1:00)

㉡ 4월10일

- 단대 이동 여학생회 하는 날!
여학우 선언운동은 물론이구요~ '전쟁반대'라는 조형물에 깃대꽂기도 해요^o^
- 여전히 영상물은 상영한답니다

㉢ 총결기날!

- 성조기가 그려지거나 찍힌 옷을 예쁜 옷으로 바꾸어 드립니다!
- 지금까지 했던 선전물들은 행사장주변으로 모여!
- 여학우들의 힘찬 선언들을 모아 대형걸개 제작!

의견개진 운동의 시기 : 4월14일 ~ 25일

새벽별보면서 학우만나고 시험 잘 치자!

학우들에게 물어보자! 그리고 대답하자!!! 마지막으로 시험 잘~~~ 치자!!!

㉣ 14일 ~ 18일

- 설문지 돌리기!
복지사안, 여학생회에 바라는 점, 성의식조사등! + 사탕!!
- 수거
수거함을 만들자!

㉤ 21일 ~ 25일

- 새벽별보기운동!
학우들에게 차 한잔 나누어줍시다! (30분간진행)

봄농활 준비하는 시기 : 4월26일 ~ 30일

농활가자!!!

사계절농활의 첫 시작인 봄농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울려면 제대로 된 준비가 뒤따라야 겠죠?

㉥ 4월29일

- 여성 봄 농활학교(가안)



4월전체일정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새날열기>		역사학교 졸업식	일꾼대회
6	7	8	9	10	11	12
	반	전	총 이동총여 4.9통일열사 추모제	력 단위이동총여	기 총학출범식 총결기	간 한총련 임시
13	14	15	16	17	18	19
대의원대회	설 뒀간토크	문	지	사	업	
20	21	22	23	24	25	26
	<- 중간고사 치자!-> 이동 총여 '새벽별 보기'					
27	28	29	30			
		여성 봄농활학교				